

8월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영적 예루살렘 소사(素砂)에 양력 8월 12일 성탄절이 이르니, 때는 이천삼년 여름이라. 주님께서 성전 안 2층 집무실에 계시니, 기독교인들이 주를 찾아뵙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예수를 부정하고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 이면 밝히 말하시오”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10:22-24 의역)



조희성 주님의 김포 생가

태몽

조희성님의 모친께서는 조희성님을 잉태하시기 전에 이러한 꿈들을 꾸셨다. 어떤 사람이 계양산(桂陽山:인천 부평 소재)에서 모친을 향해 손짓을 하며 자기한테로 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오색찬란한 빛과 구름이 온 산을 뒤덮더니 환웃을 입은 선녀들 10여 명이 하늘에서 날아와 모친에게로 내려왔다.

그 선녀들은 성모님 주위를 에워싼 후 빙빙 돌더니 일제히 성모님을 향해 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모친은 깜짝 놀라 “어떤 연고로 그러시느냐”고 하니 선녀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의 태중에 계신 분은 인류 중에서 가장 크신 분인데 그분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일할 위대하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중에 계신 그분을 향해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를 잘 보존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또 이런 꿈도 꾸었다. 부평읍에서 서쪽으로 5리쯤 가면 계양산이 있는데, 이 산은 예로부터 명산으로서 많은 전설을 지니고 있는 산이다. 하루는 꿈에 계양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산봉우리가 셋이 있고 가운데 큰 봉우리의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 거기 있는 맑은 물이 근원이 되어 옥수(玉水)같이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것에는 편편하고 넓적하게 생긴 바위가 하나 있고 그 위에는 깨끗한 물동리와 바가지가 놓여 있어서, 이 맑고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을 바가지로 떠서 물동리에 가득 채워 놓으니, 어디선지 하얀 비둘기가 날아와 물동이 위에 앉아, 모친은 그대로 물동이를 이고 감정리 집으로 내려왔다.

며칠 후에 다시 그 산을 올라가니 낮은 청년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쪽을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니 새하얀 옷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한 처녀들이 30여 명 줄지어 걸

어오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한편으로는 기이하기도 하여 그 청년에게 “저 처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고 물으니, “당신을 하늘나라로 안내하기 위하여 환영 나온 선녀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흡족함을 느껴 산을 내려왔다. 또 하루는 어느 동산에 올라갔는데 큰 옥수수대가 둘 있고 잘 영글은 옥수수가 한 대에 한 개씩 열려 있었다. 옥수수를 모두 따 자루에 담으니 자루 두 개가 가득하여 그것을 또한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장차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공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절대로 꿈에서 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모친께서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계시다가 조희성님이 밀실에서 연단을 받고 완성자가 되어 영생(永生)의 역사를 시작한 1981년도에 와서야 비로소 조희성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다.

천도교인이나 한학자이신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의 이름을 짓다

조희성님은 경기도 김포군 감정리에서 1931년 8월 12일(음력 6월 28일 새벽 4시경) 농부이신 부친 조경남(曹慶男)과 모친 오지덕(吳只德)사이에서 9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런데 증조부께서도 형제 두 분 중 둘째였고, 조부와 부친께서도 역시 둘째였으며 조희성님 대에 와서도 남자 5형제 중 둘째였으니, 4대를 계속해서 차자(次子)로 이어져온 것이다.

조희성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외할아버지께 들어서 알고 있었다. 외갓집이 부평 ‘텐밭’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어린 것을 업으시거나 손을 잡으시고 장승산 지름길 다니

시기를 좋아하셨으며, 재미있는 옛날이야기와 필요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그중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절대로 신세를 지지 말아야 한다. 어느 집에 가더라도 그냥 나오지 말고 염전 한 낫이라도 놓고 나와야 한다.”라고 훈육하셨다. 외할머니께서 “이 영감쟁이 매일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먹을 것이 나오느냐?”고 성화를 부리셔도 외할아버지께서는 대꾸하지 않고 여전히 책만 보며 잠자코 계시면서 언행을 흠뜨리지 않으셨다.

외조부께서는 한문책을 마차에 싣고 산속의 절에 가서 다 읽으시곤 집으로 내려오시곤 했다. 한학자요 미국유학을 마치고 오신 분으로 영어회화도 잘 하셨다. 외손자 조희성님은 어린 외할아버지께서 천도교인(天道敎人)이셨다는 것을 후에 가서야 알았다. 마을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지내시던 외할아버지는 부평에서 김포 부락까지 약 30리가 넘는 거리를 늘 걸어서 왕래하시면서 외손자를 업고 다녔다. 외할아버지 덕 덕분에 석경 꿀을 내는 벌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해마다 석경 꿀을 따는데, 그 석경을 들고 김포 외손자 집에까지 갖다주시면서,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이 꿀은 아무도 주지 말아라. 둘째 아들 조희성이한테만 주어라.”고 신신당부했다.

철학과 사주팔자를 푸는 것도 잘 하신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신미생(1931년생)으로 태어났고 양띠 달(음력 6월)과 별수 날(음력 28일), 그리고 새벽 4시에 태어났으니까 으뜸 원(元)자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임을 아셨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시는 분이려 당시 외손자가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할 것을 아신 것이다.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외손자를 업고 가면서 당부한 것이, “희성이, 너 내말을 잘 기억해라. 너는 앞으로 엄청난 큰일을 할 사람이야. 그런데 이 말은 너희 아버지나 엄마

한테도 얘기하지는 마라. 이걸 말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너는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어린 외손자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희성님은 세상에서 큰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외손자가 새벽 4시에 태어났다고 하여 새벽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려고 했는데, 새벽별은 밝은 별인고로 밝은 희(熙)자, 별 성(星)자로 ‘희성’이라고 작명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할아버지를 주장하시어 틀림없는 구세주가 갖게 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목시록 2장 26절로부터 28절에 “이기는 자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 또한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라는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현 선생의 예언(豫言)이 적중되다

조희성님이 태어난 부락은 중봉(重峯) 조현(趙憲)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 조현(趙憲) 선생님은 조선시대의 사충신(四忠臣)으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매우 훌륭한 충신이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조정에 상소(上疏)를 올리고 또한 직간(直諫)을 하였다고 함경도로도 옥천으로 귀양을 가셨던 것이다.

그때 병력을 준비하였더라면 임진왜란 때 그렇게 비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무 때가 임박하니 귀양살이 중에서도 의병을 모아 활쏘기 연습과 장갈 쓰는 법을 익히게 하였고 왜병이 쳐들어올 때, 너무나 활을 많이 쏘아서 열 손톱이 다 빠져서 나중에는 발가락으로 활을 쏘아 발톱도 다 빠지고 700명의 의병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를 하였다고 전한다.

이처럼 훌륭한 조현(趙憲)선생은 “이 부락(감정리坎井里)에 세계에서 제일가는 큰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분이 오시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고 예언하셨다고 한다. 조희성님의 친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친손자가 조현선생이 예언한 인물임을 알쩍이 아시고 금지육역으로 키워왔는데 625전쟁 때 인민군들에게 붙잡혀 포로로 복송된 이후 생사를 알길이 없는 가운데 친손자가 고향 김포로 돌아오기를 에타게 기다리시다가 결국 속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조희성님이 포로생활 3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을 그토록 기다리셨던 할아버지께서 2개월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매우 애똥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우리 희성(熙童)이가 장차 큰일을 할 공상을 지녔어. 손에는 임금 왕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친손자에게 들려주었던 것이다.* 백태선 기자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89> “내 생각 전체를 맡아 주장해 주셔야”

감정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이 닥쳐도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은 다 죽어 없어지고 완전히 나무와 같이 되어야 자유율법을 지켰다가 되는 것이다. 내 생각이 돌아가면 여지없이 피가 썩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돌아가지 않도록 생각을 묶고 묶고 또 묶어도, 심지어 기도

하는 억만 분의 일 초 사이에도, 그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당신이 기도해 주시고, 내 생각 전체를 맡아 주장해 주시고 당신께서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나를 이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것이다.*

행복한 노년 준비

육부六腑의 작용과 기능의 이해

지금까지는 사람 몸 안의 오장에 대해서 간결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몸 안의 육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장만이나 중요한 것이 또한 육부입니다. 세상사엔 주(主)가 있으면 보조(補助)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도 주가 되는 오장이 있고, 부가 되는 육부가 있습니다.

상에서도 알아야 사기당하지 않고 알아야 내 돈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꼭 육부를 알아야만 합니다.

건강에 대한 상식이 없는 분들이 오장의 중요성만 알고 육부를 가버려 알고 쉽게 떼어내는 수술을 단행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육부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탄 말인가!!

육부의 기능은 주로 수곡(水穀)을 소화시키고 진액(津液)과 조박(糟粕) : 음식물의 영양분이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를 받고 내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장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육부의 중요성이 건강을 세우는데 꼭 중요하고 필요한 장기라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건강도 아는 만큼 관리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육부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오장에 붙어 보조 역할을 할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을 잃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육부는 소화된 물질을 전달하고 축적하지는 않으므로 심하되 충만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한의학에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해부학적인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체내의 장기가 체표에 나타내는 각종 기능현상까지 포괄한 개념을 말합니다. 인체의 활동은 장부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관계 위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격언처럼 건강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대단히 큰 오판과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는 말합니다. 세

장부의 상호관계는 인체의 장부를 음양으로 구별하면 장은 양(陽)이고 부는 음(陰)입니다. 장부의 상호관계는 장과 장, 장과 부, 부와 부 사이에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장부와 지체(肢體), 오관(五官), 오색(五色), 오지(五志), 오미(五味) 등의 각 방면에서 나타나며 자연계와 사계절의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오장과 육부의 짝으로 폐와 대장, 심장과 소장, 간과 쓸개, 비장과 위장, 신장과 방광입니다. 또, 오장육부는 몸의 바깥기관과 연결되는데, 폐와 코, 간과 눈, 심장과 혀, 비장과 입, 신장과 골격장 등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육부와 관련된 건강상식을 기본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주호 기자

KBS 상대 소송 조정으로 끝나

승리제단이 KBS를 상대로 2019. 10월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7월17일 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KBS는 모바일 앱 「My K」를 통한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2003. 8. 14 「KBS 뉴스9」에서 방영된 본제단 관련 뉴스를 그대로 포스팅하였던 바 이는 본제단과 조희성 구세주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어 해당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였으며, 만일 삭제가 안된다면 조희성님의 무죄기사를 같이 보도해달라고 하였다.

이래 1. 원고와 피고는 위 동영상 이미 삭제하였음을 서로 확인한다. 2. 향후 피고가 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는 망 조희성의 살인교사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의 1심부터 3심까지의 결론을 함께 언급해줄 것을 협조한다.

서울남부법원은 사건을 조정센터에 의뢰하였고, 장혜영 상임조정위원이 아래와 같이 조정해 주었는데 승리제단의 청구내용을 전부 다 인용해 주었으니 완전한 승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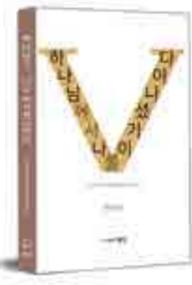
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KBS가 본제단에 대한 보도를 할 때에는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정이 출석한 KBS 담당자는 앞으로 조희성님에 대한 보도는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점령하는 과정을 담은 책

하나님은 당신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읽기 원하는 분들은 주소를 적어서 아래의 번호로 문자 또는 이메일 주시면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해인 담당자 010-3019-1440, bookman5@naver.com